



미 증시, FOMC 종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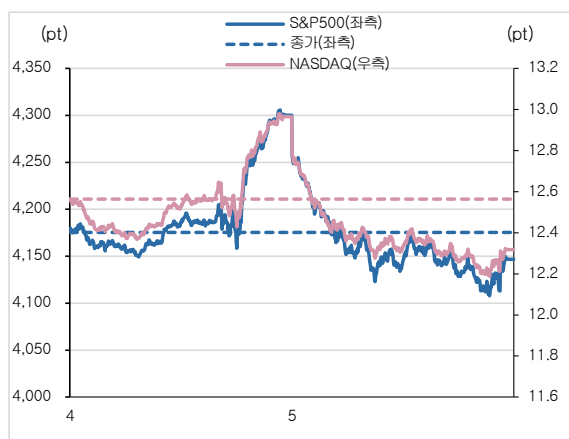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4~5 일 (목) 미국 증시는 4 일 비둘기파적인 파월 의장의 FOMC 발언에 힘입어 급등했지만, 5 일 금리 급등,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며 결국 하락(4~5 일, 다우 -0.39%, S&P500 -0.69%, 나스닥 -1.96%, 러셀 2000 -1.46%)

4 일 (수) 미국 증시는 비둘기파적인 파월 의장의 FOMC 발언에 힘입어 급등. S&P500 지수는 장 초반 보험권 출발 이후 FOMC 결과 발표 이후 파월 발언에 힘입어 상승폭 확대. 이날 파월 의장은 다음 FOMC 에서 50bp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두었으나,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actively considering)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증시는 안도감 확대.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 50bp 인상(0.75~1.00%), 6월부터 양적긴축 시사. 한편 4 월 미국 ISM 서비스업 지표는 57.1pt(예상 58.5pt, 전월 58.3pt)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 지표 세부 항목 중 물가 지표는 84.6pt(전월 83.8pt)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 4 월 ADP 고용보고서는 24.7 만명 증가(예상 39.5 만명, 전월 47.9 만명)하며 견조하게 발표됨.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4.1%), 커뮤니케이션스(+3.7%), IT(+3.5%)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부동산(+1.0%), 필수소비재(+2.2%), 헬스케어(+2.2%)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음(다우 +2.81%, S&P500 +2.99%, 나스닥 +3.19%, 러셀 2000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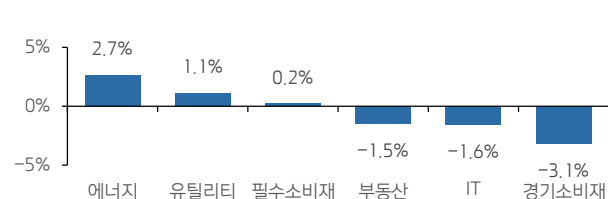
5 일 (목) 미국 증시는 금리 급등, 전일 FOMC 후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쇼피파이 등 부정적인 실적 소식에 의해 급락. 이날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가 15bp 급등하며 3.1%를 상회하자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면서 뉴욕 3 대 지수 모두 급락. S&P500 지수는 1% 하락 출발 이후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마감. 이날 VIX 지수는 22.7% 급등하면서 다시 31pt 를 상회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대. 한편 영란은행은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 올해 경기 위축을 예상한다고 전망.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경기소비재(-5.8%), IT(-4.9%), 커뮤니케이션스(-4.1%)의 낙폭이 가장 컸고, 유틸리티(-1.1%), 에너지(-1.4%)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종목별로 실적을 발표한 쇼피파이(-14.9%), 이베이(-11.7%), 앳지(-16.8%) 등은 실적 및 가이드스 부진으로 주가 급락(다우 -3.12%, S&P500 -3.56%, 나스닥 -4.99%, 러셀 2000 -4.04%).

S&P500 & NASDAQ 일중 차트(4~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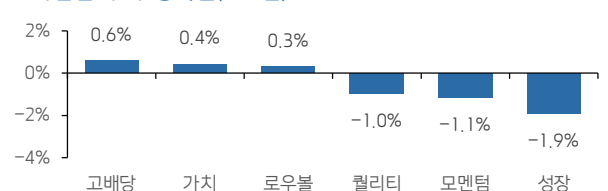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4~5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4~5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4~5 일)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46.87	-0.69%	USD/KRW	1,256.76	-0.86%
NASDAQ	12,317.69	-1.96%	달러 지수	103.55	+0.08%
다우	32,997.97	-0.39%	EUR/USD	1.05	-0.75%
VIX	31.20	+6.67%	USD/CNH	6.68	+0.91%
러셀 2000	1,871.15	-1.46%	USD/JPY	130.21	+0.87%
필라. 반도체	3,005.53	-1.2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084.10	+0.1%	국고채 3년	3.175	+7.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428	+3.7bp
Eurostoxx50	3,696.63	-1.72%	미국 국채 2년	2.703	-7.9bp
MSCI 전세계 지수	650.08	-0.92%	미국 국채 10년	3.037	+6.5bp
MSCI DM 지수	2,864.43	+2.4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63.84	-0.81%	WTI	108.26	+5.71%
MSCI 한국 ETF	65.88	-1.77%	금	1875.7	+0.2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4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3.6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69.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전거래일 미국 증시 폭락에 따른 국내 증시에서의 위험회피심리 증폭 가능성 2. 4 일 미국 증시 급반등 랠리의 국내 증시 미 반영에 따른 하락폭 제한 가능성 3.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매매패턴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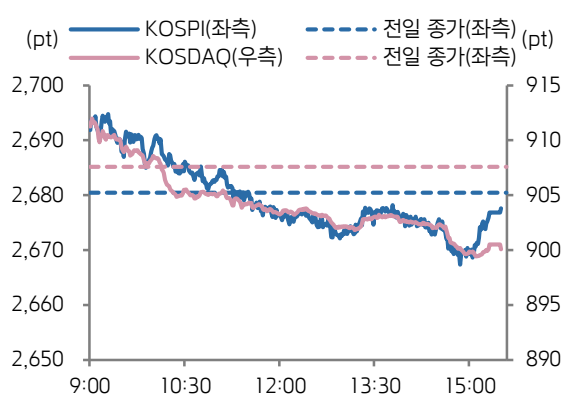
지난 4 일(현지시간) FOMC 이후 파월의장의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에 힘입어 안도 랠리가 출현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그의 발언은 지난달 IMF 에서의 연설과 크게 달라진 측면은 없었음. 이에 더해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분을 일시에 반납함에 따라, 시장의 불안심리는 FOMC 이전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

또한 기대인플레이션도 재차 상승한 것이나 6 월 FOMC 75bp 인상가능성(87%)도 다시 확대되는 등 현재 시장과 연준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 줄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 불안의 중심. 같은 맥락에서 FOMC 성명서 상으로 연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으며,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난 악화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연준 입장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핵심 요인인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난은 통제 밖의 영역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임. 이처럼 공급 측면 상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준은 긴축을 통한 수요 진작으로 인플레 압력을 낮출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연준의 생각과 달리 시장은 그 과정에서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긴축 정책을 둘러싼 연준과 시장의 간극이 좁혀지고 금융 불안도 진정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확인이 필요. 11 일(수) 발표 예정인 4 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현재 컨센서스가 8.1%(YoY, 전월 8.5%)로 형성되면서 피크아웃 자체는 기대되는 상황. 다만, 현재 시장 심리나 매수세 모두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 시 4 월 소비자물가 발표 전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증시는 변동성 확대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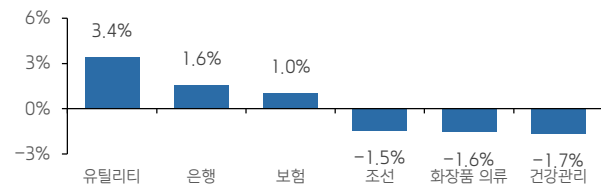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폭락의 충격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겠지만, 국내 휴장 기간 중 미국 증시의 급반등 랠리를 누리지 못했던 만큼 장중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또한 미국 증시의 급락 성격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주도주들의 성장 불안 기인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반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기업들은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성장 불안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미 증시 폭락 충격에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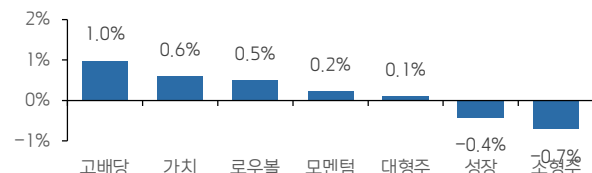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